

라운아띠 5기, 필리핀에 입성하다



지난 3월 3일,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한국 YMCA가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운아띠 5기’ 필리핀 팀이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여 필리핀에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 팀은 모두 한국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상엽(27), 박진영(25), 이수진(25), 김이민경(25), 조현경(23) 단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YMCA of Manila의 스태프인 Kuya Pabs의 안내를 받으며 2박 3일 동안 지내게 될 YMCA 호텔로 향하였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Cabanatuan city로 이동한 후, YMCA of Nueva Ecija에 소속되어 Valle Cruz 지역에서 지역사회 주민조직사업과 함께 Day care center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Summer School Program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년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필리핀의 청소년들과 함께 Work camp에 참가하게 된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라운아띠, 필리핀 환경에 최적화 중

지난 5일, Cabanatuan City에 도착한 후, YMCA of Nueva Ecija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라운아띠 팀원들은 현재 필리핀의 환경에 그들을 최적화시키는데 한창이다.

그들은 과감하게 3월의 목표를 ‘필리핀,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및 라포형성’으로 설정한 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필리핀스럽게 물들이고 있다.

어느새 피부는 새까맣게 그을렸고, 필리핀 음식 Chicken Adobo 와 Sisig를 사랑하며, 비록 불협화음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Pinoy Ako 를 주구장창 소리쳐 부르고, 말도 안 되는 따갈로그어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3월 현재, 그들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준비로 한창이지만, 그보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밥 먹고, 술 마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달의 목표인 진정 필리핀스럽고, 필리핀다운 라운아띠 팀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더욱 기대가 된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지역 - Valle Cruz	3
라온아띠 ‘발리크루즈 Day Care Center’ 를 방문하다	
라온아띠 ‘Valle Cruz’ 가자마자 춤추고 노래하다	
라온아띠, 여기저기 초대받아	
Day Care center 졸업식 열려	
천국 속의 또 다른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다 - ‘라온아띠 팀을 위한 깜짝 피크닉파티’	
사회	5
3월 26일 ‘지구의 날’ - 라온아띠 팀의 숙소에 켜진 작은 촛불 하나	
라온아띠 팀 Dump site 다녀오다 - 그 많던 쓰레기는 어디로 갔나?	
교육	6
라온아띠,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길거리로 나서다	
공포의 영어클래스 속으로 - “Come on! You can do it!!”	
문화	7
라온아띠, 한류스타가 되다 - 마을 피에스타 참석,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필리핀의 중심 ‘마닐라’ 를 거닐다	
라온아띠, Nueva Ecija High School에서 화려한 공연 선보여	
라온아띠, 약물중독 예방 심포지엄 ‘Say no’ 참석해	
재래시장 단골 되다	
생활	9
수진양의 24번째 파티가 열려	
Welcome Party! - YMCA 이사진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조깅하던 중 개들에 습격 당해 - “우리동네 개조심 비상”	
Primavera 일등 맛 집 소개 - 중독되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꼬치의 세계	
라온아띠, 4월 활동계획 준비완료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화들짝 놀라다	
특집	11
<집중탐구> BMW, 그 모든 것을 파헤친다	
<인물탐구> YMCA 식구들을 소개 합니다	
오피니언	12
No Pain, No Gain - 조현경	
아주 작은 시작 - 김이민경	
답 없는 질문들 - 이상엽	
(만평) 당신이 생각한 것과 현실은 다르다 - 이수진	
필리핀에서의 한 달, 그리고 국제자원활동	
이 달의 사진	15

라온아띠 ‘발리크루즈 Day Care Center’ 를 방문하다

Valle Cruz! 새로운 만남, 설레는 시작



2011년 3월 7일, 라온아띠 5기가 Cabanatuan city에 도착한지 3일째 되던 날이자 첫 월요일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Valle Cruz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다. 거주지인 안락한 Primavera를 떠나 팀을 태운 Alex가 아끼는 BMW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고속도로를 뿌연 먼지를 내뿜으며 지나고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마을입구부터 아이들이 ‘안녕’ 이라 외치는 것을 보니 지난 1년간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을 3, 4기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그리고 곧 Day Care Centre(이하 DCC) 앞에 이르게 되고 집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대화를 나누고 계신 어머니들의 모습과 그 뒤로 익숙한 곰 세 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5기들은 일제히 아주머니들을 보고 미소를 머금은 채 “Magandang umaga po” (good morning)를 활기차게 외쳐 온다. 이것이 바로 첫만남이자 첫인상이다. 그리고 밖에 나와있는 아이들은 조금 수줍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익숙해서인지, 오히려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라온아띠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교실에서는 일부 어머니들이 Ate Mayette (YMCA직원이자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에게 졸업식에 있을 공연을 준비시키기 위해 민속춤과 노래를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다. 잠시 후 Ate Mayette은 팀원들을 아이들에게 소개 시키고 멤버들은 어색하지만은 준비해 온 파갈로 그어로 저마다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퍼포먼스 요구에 잠시 당황해 하지만은 곧바로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그 후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지만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박진영군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오히려 그 점을 알고 있는지 장난을 걸며 다가와 주었다. 특별한 경험이었으며 어머니들 또한 너무 유쾌하다.” 라며 말을 꺼내었다. 오늘 Valle Cruz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 진다. 단언컨대 현재로써는 라온아띠가 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라온아띠 ‘Valle Cruz’
가자마자 춤추고 노래하다

지난 3월 7일, 라온아띠 팀은 그들의 주요활동지가 될 Valle Cruz를 찾아갔고, 지역주민들과의 첫 만남과 동시에 생일파티에 초대받았다. 이 날 생일의 주인공은 Christian(9)으로 Day Care center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였다. 라온아띠 팀은 생일파티에 참여하여 Christian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핸드벨 공연을 선보였고,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파티의 흥을 북돋았다.

첫만남에 다소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마을 주민들은 열렬히 환영을 해주었고, 라온아띠팀은 그에 맞춰 열심히 노래와 춤으로 파티를 즐겼다. 이 후 그들은 이러한 파티에 참여하여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좋은 기회를 가졌음을 감사해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라온아띠, 여기저기 초대받아

라온아띠 단원들은 발리크루즈 주민들에게 여기저기 초대를 받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Day care center의 졸업식이 끝난 후, 저녁을 세끼나 먹게 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초대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아 고마움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다. 주민들의 사랑에 체중은 늘어나지만, 주민들과 단원들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Day Care center 졸업식 열려



지난 21일 Cabanatuan City의 바랑가이(행정구역 명칭 중 하나) 중 하나인 Valle cruz에서 열린 Day care centre(이하 DCC) 졸업식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그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졸업식을 위해 라온아띠 5기 필리핀 팀원들은 14일 저녁부터 회의를 통해 DCC 졸업식장을 꾸미기 위한 물품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후, 15일 저녁 물품 구입을 통해 16일에 화려한 현수막을 완성하였다.

졸업식 당일, 아침 일찍 Day care center에 도착한 단원들은 풍선아트와 직접 제작한 현수막으로 졸업식장을 장식하고 오후에 마련된 공연을 위해 퍼포먼스 연습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살인적인 더위 아래서 한결 같은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고, 단복 위에 태권도복을 또 입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수고가 많다”는 학부모들의 말에 이들도 연신 “Walang problema(No problem; 문제없어요)”를 외치며 밝은 모습을 유지했다.

이 날 태권무와 함께 Congratulations, 도레미 송, 작은 별 등의 곡을 핸드벨로 연주해 많은 이들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천국 속의 또 다른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다

‘라온아띠 팀을 위한 깜짝 피크닉파티’



라온아띠 필리핀 팀이 지난 22일, Valle cruz 주민들과 함께 계곡으로 소풍을 떠나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단원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소풍은 단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더욱 큰 즐거움을 주었다.

Valle Cruz 경작지 내에 위치한 이번 나들이의 목적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계곡은 필리핀 답지 않은 시원한 바람과 이국적인 풍경을 가진 멋진 곳이었다. 이 날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Bangus(민물고기의 한 종류, 살이 연하고 값이 싸 대중적이다.) 요리를 맛 본 단원 박진영(25)씨는 그 때를 회상하며 “마치 태평양 한 가운데서 갓 잡아 올린 참치를 먹은 기분이에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단원들의 얼굴엔 그 동안의 피로가 싹 가신듯한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3월 26일 '지구의 날'

라운아띠 팀의 숙소에서 켜진 작은 촛불하나



‘지구의 날’은 매년 3월 26일으로, 점점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지정된 날이다. 이날은 오후 8시부터 약 10분간 소등하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참여인구가 늘

고 있는 추세라 그 효과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지구의 날을 맞아 캠페인에 참여한 라운아띠 필리핀 팀 5기 단원들을 밀착 취재하여 보았다.

오후 7시 50분, 소등 10분전 Primavera에 위치한 라운아띠 팀의 숙소는 단원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실 탁자에는 미리 준비해둔 6개의 촛가 놓여져 있었고 주위에 둘러앉은 단원들은 하루를 정리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다.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 다운과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초를 점등하였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밤이었지만 촛불이 가져다 주는

은은한 분위기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다.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명상시간을 갖고 난 후 다시 불을 켜는 시간은 8시 30분. 이번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종종 이런 촛불 점등 시간을 갖자고 입을 모아 말하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하나 된 의지와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초록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잠시 미루어 놓은 회의를 진행하는 그들만의 특별했던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라운아띠 팀 Dump site 다녀오다

그 많던 쓰레기는 어디로 갔나?



2011년 3월 10일 라운아띠 멤버들은 Kuya Alex의 도움으로 그들이 커뮤니티 조직 활동을 하게 될 터전인 Valle Cruz에 있는 쓰레기 산으로 향하였다. 쓰레기 산으로 대변되는 Valle Cruz,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마을의 큰길을 따라 곧바로 달려나가자 저 멀리 쓰레기 산이 뿔연 연기와 함께 시야에 나타난다. 주변의 푸른 논들과는 사뭇 대조되는 분위기가 인상적이다. 쓰레기 산이 눈앞에 크게 펼쳐질 즈음 쓰레기가 타며 내뿜는 연기와 냄새가 코끝을 자극해 온다.

쓰레기 산으로 향하기 전 Kuya Morito로부터 들은 주의사항에 따라 팀원들은 다시 한번 쓰레기산을 생활 터전이자 생계수단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킨 후, 쓰레기 산에서

인상을 흐리지 않겠다며 미소 마저 띄어 보인다. 그 후 그들은 Alex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잠시 후 그들은 그곳에서 돈이 될만한 재활용품(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등)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한 라운아띠 멤버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들의 호의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리고 조금 지나 Alex의 도움으로 쓰레기 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 끼여 그들의 일을 직접 배워 보게 된다.

김이민경양은 “잠시나마 일을 해보겠다고 맨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질 때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장갑을 끼고 해야 된다고 되려 걱정 해주시는 것을 보고 되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팀의 막내 조현경양은 “쓰레기 산의 연기와 냄새로 인해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었던 것이 아쉽고 미안하다.”라며 조용히 운을 떼었다.

평소 같았으면 소란스러웠을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오늘 따라 조용하였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라온아띠,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길거리로 나서다 뜨거운 햇볕보다 더 뜨거웠던 그들의 열정



라온아띠 팀이 필리핀에 온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필리핀에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4월부터 시작될 summer school 준비에 한창이다

필리핀에서의 4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라온아띠 팀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Valle cruz와 Magsaysay sur. 두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라온아띠 팀은 우선 YMCA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Valle cruz 지역의 Day Care Center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대상의 Summer School에서는 “One big family”라는 타이틀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지구촌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매주 월, 수, 금. 오전 9:00~11:00). 청소년 대상의 Summer School은 “태권도”가 주된 프로그램이다. 마을 내의 청소년들과 태권도를 통해 만남을 시도하고, 함께 운동을 하면서 관계를 구축하여, 이후 마을 조직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매주 화, 목. 오전 9:00~11:00)

마지막으로 YMCA가 위치한 Magsaysay sur에서 진행하게 될 Summer School 프로그램은 “Free Taekwondo Class”이다. 태권도는 현재 필리핀 사회에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지만, 교육비 부담이나 여러 조건들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 직접 주민들을 만나며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다. 4월부터 시작 될 더위, 그러나 그 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라온아띠 팀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공포의 영어클래스 속으로 “Come on! You can do it!!”



3월 2일 필리핀으로 파견된 라온아띠 필리핀팀 5명의 단원들은 현지어 수업의 일환으로 자원 활동과 함께 매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Diosa 선생님과 함께 영어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들은 영어 수업 시간을 통해 영어회화 교육을 받을 뿐 만 아니라 Women empowerment, Democracy, Voluntary work, Physical fits, Gender equality, Globalization, The Great nation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특히, 영어실력이 부족한 단원들은 자신감이 부족하여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려워하였고, Diosa 선생님의 공포의 압박 속에서 주어진 30분 동안 문법 상으로 맞든지 틀리든지 끝까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박진영’ 단원은 “주제는 흥미롭고, 평소 관심이 많은 것들이었으나 영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30분 동안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 영어는 단순히 말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따갈로그어 공부와 함께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여 이 곳의 친구들과 더욱 더 진솔한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 30일, Diosa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라온아띠의 교실을 찾아 Tongue twister, Dancing activity 등의 특정한 주제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그들과의 인연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라온아띠, 한류스타가 되다

마을 피에스타 참석, “다같이 하자 동네 한 바퀴”



3월 17일, Nieves, Nueva San eelonardo. 라온아띠 팀원들은 뜻하지 않게 인기스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YMCA의 사무총장이자 라온아띠의 kuya인 Morito의 마을에서는 마을을 수호하는 성자를 기리는 의미에서 피에스타가 매해마다 열린다. 그 피에스타 전야제로써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라온아띠 팀도 퍼레이드 행렬의 일부로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팀원들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종이와 풍선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차를 타고 길을 나

섰다. 퍼레이드의 출발지점인 마을의 농구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농구 팀, 마칭 밴드들, 다양한 컨셉으로 행렬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 흥겨운 음악이 모두를 들썩이게 했다.

그리고 신나게 동네 한 바퀴. 두꺼운 겨울 한복과 더위에 지지 않고 라온아띠 팀원들은 한껏 미소를 지으며 밝게 인사를 했다.

“Magandang hapon po” 구경 나온 주민들과 하나하나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건네 주며 마음을 주고 받았다.

김이민경 단원은 “밝게 웃으며 다시 인사를 보내주는 마을 주민들의 환대는 앞으로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고 이 날의 소회를 밝혔다. 퍼레이드에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는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들 간의 교감이었다. 팀원들은 서로 눈짓으로 인사도 나누고 지쳤을까 힘내라고 응원해주기도 하며 마을 주민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신나게 동네 한 바퀴. 마을은 한층 더 하나로 이어졌다.

한번 봤을 뿐인데도 더 가까워진 사람들과 풍경들. 퍼레이드의 마무리는 자연스레 제각기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누구나 피에스타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거리에 나와 참여하고 또 마무리 될 때에는 집으로 돌아서는 일련의 과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마을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은 하나로 이어주는 흥겨운 에너지가 되었다.

이 날 대단한 스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주민들은 마을에서 모두 대단한 스타가 되었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필리핀의 중심 ‘마닐라’를 거닐다

필리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

3월 3일, 라온아띠 5기 필리핀 팀 다섯 명이 필리핀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약 4000km, 비행시간 약4시간. 앞으로 그들은 필리핀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실제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를 비교해보았다. 마닐라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필리핀을 느낄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상반된 온도 차이, 덥고 습한 공기가 가장 먼저 살갗으로부터 느껴지는 필리핀이었다. Kuya pops의 환영을 받으며 단원들은 짧은 마닐라 투어를 맛볼 수 있었다.

첫번째로 도착한 곳은 성 아우구스틴 성당. 이 성당은 스페인 지배 시기에 지어진 곳으로 스페인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특히 그들이 인상깊어했던 것은 필리핀이 스페인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지배하는 국가, 지배 당하는 국가라는 단선적인 관계 속에 상대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한 손에는 총,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서 필리핀에 정착한 그들에 대해 필리핀 사람들의 기록은 보다 복잡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남긴 채 다음 장소인 Rizal Park로 이동했다. Jose Rizal은 필리핀을 대표하는 위인으로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큰 공헌을 했다. 그의 정신은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Rizal Park는 그를 기념하기 위한 공원으로 스페인의 침략 당시 수용소로 쓰여져 실제로 Rizal이 감금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의 흔적을 더듬어 보며 당시 시대상을 그려볼 수 있었다.

짧은 마닐라 투어였지만 라온아띠팀은 필리핀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라운아띠, Nueva Ecija High School에서 화려한 공연 선보여 특명! NEHS를 사로 잡아라!



라운아띠 단원들이 그 동안 갖고 담은 멋진 노래와 댄스, 태권무를 성황리에 선보여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카바나투안 Nueva Ecija에 위치한 Nueva Ecija High School(이하 NEHS)에서 라운아띠의 영어선생님이자, NEHS의 교사인 Diosa선생님이 주최한 영어 연극제가 열렸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극제에 게스트로 초대된 라운아띠 단원들은 먼저, 한국 대중가요 ‘마법의 성’을 열창하였고, 이어지는 무대로 남자 단원이 준비한 쿵트형식의 멋진 댄스를 선보였다. 특히 아브라카다브라를 배경음악으로 한 남자 단원들의 화려한 춤사위는 NEHS의 여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또한, 여자 단원들의 원더걸스 Nobody 무대에 이어진 태권무는 관중의 이목을 확실하게 끌어오는 것에 성공하여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뒤로하고 무대를 내려온 단원들은 NEHS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번 공연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라운아띠 단원들은 다음 공연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 뵈겠다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진영 단원(25)과 조현경 단원(23)은 각각 성룡을 닮은 외모와 태권도 실력으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조현경 기자 <glgle1501@nate.com>

라운아띠, 약물중독 예방 심포지엄 ‘Say no’ 참석해



지난 12일, 라운아띠 멤버들은 ‘약물중독’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날의 행사는 대학교수, 학교교사, 경찰서장, 그리고 약물중독에 관한 캠페인은 펼치는 대학생 조직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Cabanatuan 지역의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 내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학생들의 예방캠페인 참여를 촉구하는 ‘서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포지엄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난 후 ‘박진영’ 단원은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행사 시작 전, 사회자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이 있다며 ‘라운아띠’를 소개하였고, 많은 필리핀 대학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그들을 환영하였다.

김이민경 기자 <babodak@naver.com>

재래시장 단골 되다

거의 3일에 한번 꼴로 라운아띠멤버들은 YMCA근처의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물건들,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에 라운아띠는 금세 매료되었고, 여기저기 즐비한 값싼 과일 등에 라운아띠들은 허기진 배를 어루만질 수 밖에 없다. 재래시장이 있어 그들은 행복하다고 매일 말한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수진양의 24번째 파티가 열려

필리핀에서의 유일한 생일파티



지난 27일, Primavera homes에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다. 이날은 라온아띠팀의 안방마님 ‘이수진’ 양이 24번째의 생일을 맞이하는 날로써, 다른 멤버들은 그녀를 위해 아주 특별하고도,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였다.

먼저, 필리핀에서 생활한 이래로는 처음으로 한국음식을 - 김치찌개를 비롯하여, 제육볶음,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을 - 요리하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던 한국의 맛을 음미하였고, 수박, 망고, 배, 사과, 파인애플 등을 준비하여 화려한 과일잔치를 벌였다. 특히, 이 날의 주인공 이수진(24)양은 평소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했으며, 노래를 부르듯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항상 흥얼거렸기에 그녀는 과일폭탄세례에 기쁨을 감출 수 가 없었다.

또한, 라온아띠 팀은 그녀가 예전에 장난스레 내뱉었던 Super XX-Large 사이즈의 카드를 선물로 받고 싶다는 말을 기억해내어 초대형크기의 카드를 구입하였고, 그 카드에 비밀스레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였다. 이에 또 한번 이수진양은 크게 감동을 하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고이 간직하여 절대 구겨짐 없이 가져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수진양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Brother Alex와 Morito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였고, Mr.Kim 역시 파티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하면서 종합 감기약을 선물하였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이수진양은 필리핀에서 아주 특별하고도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였다.

박진영기자 <sendoya@naver.com>

Welcome Party!

YMCA 이사진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2011년 3월 18일. 라온아띠가 Cabanatuan City에 도착한지 2주째 드디어 YMCA Nueva Ecija에서 마련한 Welcome party가 시내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라온아띠 회원들은 오전에 있었던 지역 축제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나서 다소 피곤한 상태였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BOD(Board Of Director)들과 YMCA직원들에게 강한 첫인상을 심어주려 노력하였다. 처음 그들이 레스토랑의 입구에 들어 섰을 때 - 한국이었다면 일반적인 규모의 크기 - 연신 환호하는 것을 보며 2주였지만 벌써 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YMCA 식구들과 인사를 나눈 후, President의 환영사와 기도와 함께 Welcome party는 시작 되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통해 참가자들은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라온아띠 5기는 지금까지 연습하며 불렀던 Pinoy Ako(필리핀인들의 긍지를 보여주는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곧 이어진 태권무 시범을 통해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범이 있기 전 팀 리더인 이상엽씨는 청중들에게 “저희가 이런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만한 이런 멋진 기회를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매일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핸드벨 연주를 보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자 팀원들은 주저 없이 비록 연습은 부족했지만 즉흥적으로 연주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2주가 흘러 가는 날이었다. 앞으로 그들의 귀추가 자못 주목 된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조깅하던 중 개들에 습격 당해

“우리동네 개조심 비상”



필리핀 Primavera's Home에 거주하고 있는 라온아띠 5기 단원 중 한명인 이 모양(25)과 조 모양(23)이 지난 21일 조깅을 하던 도중 동네 개들의 습격을 받아 주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조 모양의 말에 의하면 “21일 아침 처음으로 아침 운동을 하기로 동료 이 모양과 약속을 하고 집을 나섰으나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던 동네 개들에게 쫓겨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고 그

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삼켰다.

한편 동료 이 모양은 자신이 동네 산책을 할 때에 “그 개들은 마치 배고픈 하이어나 마냥 미쳐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단원들은 팀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걱정하며 건강과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Primavera 일등 맛 집 소개

중독되면 빠져 나올 수 없는 꼬치의 세계



필리핀 Primavera's Home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손 맛의 장인이 있어 라온아띠 5기 필리핀 팀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하 라온아띠)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 앞에서 이웃인 NaNay (한국어로 어머니라는 뜻이다.)Bill ma와 그의 가족들이 숯불 꼬치를 15peso(원화 450원), 곱창 5peso(원화 150원), 막창 8peso(원화 240원)에 판매하고 있어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라온아띠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배고플 때는 기본 200peso는 쓴다.”며 꼬치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집이 팔리는 대로 마닐라 시티로 이사를 할 것이라는 NaNay Bill ma의 결정에 “그러면 우리는 무얼 먹고 사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낙이 없다.”고 말하며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 라온아띠 5기 필리핀 팀의 회계 담당 이 모양(25)은 “앞으로 꼬치 매출과 이들의 소비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kindcd@nate.com>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에 화들짝 놀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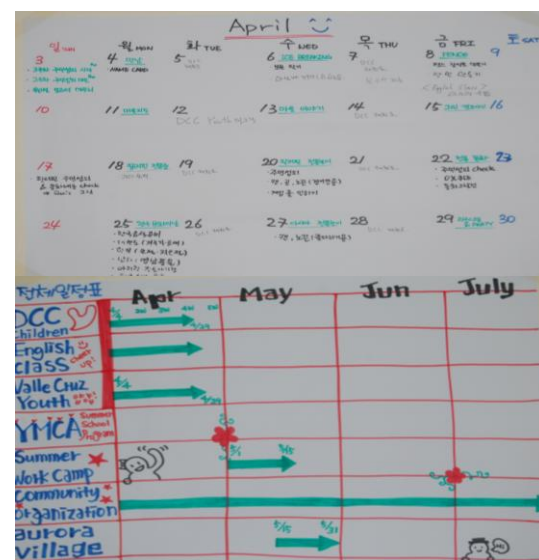


라온아띠 단원의 숙소에서 Primavera의 한 소녀로부터의 깜찍한 편지가 도착하였다.

라온아띠의 이웃사촌인 Josiene(9)는 단원들과 같이 배드민턴을 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 귀여운 그림편지를 작성하여 그들의 집에 훌쩍 던져놓고 돌아갔다. 그 후로도 몇 장의 편지가 더 전해져 라온아띠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이상엽 기자 <yeob1213@gmail.com>

라온아띠, 4월 활동계획 준비완료



라온아띠 필리핀 팀의 4월 교육 및 지역 사회조직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었다.

먼저, 교육활동으로는 Valle Cruz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에서 세계로 떠나는 One Big Family’ 프로그램이 월, 수, 금(am 9시 - 11시) 진행될 예정이고, 동일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ummer Taekwondo school’이 화, 목(am 9시 - 11시) 진행된다.

또한, YMCA 주변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Free Taekwondo Class’가 월, 수, 금(pm 4시30분 - 5시30분)까지 열린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Valle Cruz 지역의 청소년 및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마을의 요구와 욕구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만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집중탐구> BMW, 그 모든 것을 파헤친다

라운아띠 전용카, BMW의 화려한 변신

BMW, 점점 진화하다.



BMW, 점점 퇴화하다.



라운아띠의 보물 1호인 BMW가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라운아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 항상 야간운행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던 죽어있던 왼쪽 라이트가 YMCA 최고의 드라이버이자, 엔지니어인 Alex의 마법 같은 손길을 거치면서 부활하였다.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항상 굳게 입을 다물었던 클락션 역시 Alex의 손길이 닿으면서 기적같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4.1 채널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초 강력 앰프를 장착함으로써, 그 모습은 한층 더 웅장하고, 위엄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차의 뒤 편에 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BMW의 화려한 비상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화려한 비상과 더불어 BMW가 점점 말썽을 피우고 있다. 근래 들어 운행 중 시동꺼짐이 잦아지고, 시동을 켜기조차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고장 난 계기판 때문에 가솔린이 바닥나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도로 한 가운데서 차가 멈춰서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라운아띠들은 차에서 내려 손수 차를 밀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이상엽 단원은 “운행 중 펑크가 나는 사고가 나기도 하여, 도중에 하차하여 걸어서 목적지를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라운아띠들은 그러한 BMW의 심술마저도 사랑하고, 함께 있는 동안 서로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해나가길 바란다.” 고 말하였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인물탐구> YMCA 식구들을 소개 합니다



Kuya Morito

YMCA of Nueva Ecija의 사무총장. 라운아띠 팀의 슈퍼바이저인 그는 라운아띠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30대 초반의 젊은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임하며,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도전 하고 있다. 특히, 기타를 다루는 솜씨가 일품이며, 노래 또한 가수 뽐치는 수준이다.



Kuya Alex

라운아띠 필리핀 팀의 동행자. 라운아띠 팀의 요리사이자, 운전기사, 통역사이다. 못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루는 데 능통하며, BMW의 실질적인 차주이다. 평소 Brother Alex라고 불리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 주는 슈퍼맨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라운아띠 5기 필리핀팀의 제 6의 멤버이다



Ate Mayette

YMCA of Nueva Ecija의 안방마님. 그녀는 현재 Valle Cruz의 Day Care Center를 관리하고 있으며, 라운아띠가 4월 달부터 진행하게 될 DCC Children 프로그램의 담당자이다. 영어를 사용할 때의 말투가 독특하며, 라운아띠 에게는 ‘ATE’ 라고 불린다. 항상 유쾌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라운아띠의 파갈로그어 선생님이기도 하다.

박진영 기자 <sendoya@naver.com>

No pain, No gain

조현경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아 다시 한번 눈을 비빈다. 그제서야 벌써 익숙해져 버린 단원들의 얼굴과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필리핀에 와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 온다. 이곳 Cabanatuan Nueva ecija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 그 시간은 짧지만 길었고, 길지만 짧았다. 음식과 기후, life style을 익히는 데는 충분했던 시간이고 진정으로 필리핀을 이해하고 하나되기에는 부족했던 시간이었다.

그래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나와 팀원들은 우리가 앞으로 일하게 될 발리크루즈와 YMCA에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난생처음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과 나의 생각을 나누는 일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Valle cruz에서의 시간은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다. 발리크루즈는 내가 본 수많은 마을 중 가장 활동적이고 정이 많은 동네이다. 한 달 동안 나는 그들처럼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물론 지금도 노력 중이다.) 그 결과 나와 마을주민들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매일 아침 Day Care Center로 출근할 때마다 “Ate Lohan!” 이라고 외치며 달려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과 정,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마냥 신나고 즐거운 날만 있을 수는 없듯이 우리에게, 나에게 힘든 날도 있었다.

원인 모를 건강문제로 고생하고 여름 교육 프로그램을 짜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 문화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어느 것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노심초사하는 자신감 없는 내 모습과 태도였다. 물론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모든 과정을 즐겼고 즐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고생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리핀에서든 한국에서든 나는 앞으로도 더 고생할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나는 커가고 있다.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고 몸과 마음을 열어 나의 머리와 가슴을 꽉 채우는 중이다. 5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내 모습이 어떻게, 얼마나 변해있을지 너무나 궁금하다. 만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시작

김이민경



익숙했던 곳을 떠나 국경을 넘어 낯선 곳에서 5개월이나 살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처음의 기대는 ‘보다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구촌 사회나 아시아, 필리핀 보다는 사람과 사람간의 예민하고 미세한 관계이다.

물론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한국 안에서만 있었다라면 만나지 못했을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이며 하나씩 배우는 즐거움이 크다.

그러나 더 많은 고민과 깨달음을 주는 건 바로 이 작은 관계이다. 목욕할 때와 화장실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순간도 혼자일 때가 없다. 늘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생김도 그 동안 살아온 과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도 모두 다른 다섯 명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우리들. 5개월간 얼마나 아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곁에 있는 친구에서부터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는 것은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행복한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다.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익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함께 하고 싶은 것(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이렇게 한 달,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새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란다.

답 없는 질문들

반갑다 필리핀

이상엽

이수진



‘아! 이 느낌, 이 냄새, 오랜만이구나 필리핀!’

처음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느낀 필리핀의 냄새와 풍경들은 역시나 내 기억 속의 그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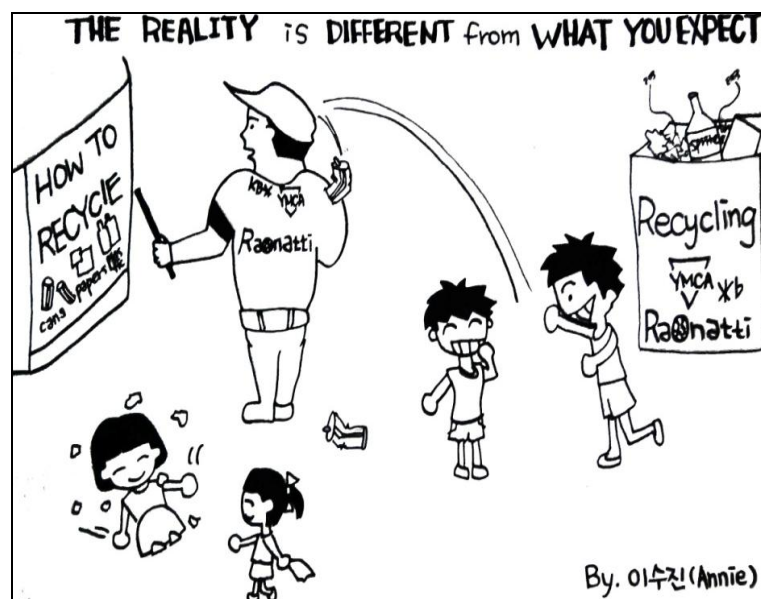
작년 2월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으로 떠나온 나와 지금 라온아띠로 다시 필리핀에 돌아온 나를 비교해본다. 그리고 필리피노들의 삶 속에서 부대끼며 알게 된 그들의 문화는 내가 단순한 어학연수생으로 와서 본 알팍한 그것들과는 깊이의 정도가 달랐다. 처음 라온아띠 지원서를 쓰면서 느꼈던 그 초조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연수시절의 경험을 읊어대던 면접 때의 거만함, 그리고 떠나오기 전 다시 만날 필리핀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지나 이제는 현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지원자, 면접자가 아니라 진짜 라온아띠 단원으로써 거만함보다는 겸손으로, 끝없는 기대보다는 날카로운 눈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로 나를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것을 해준다는 생각이 아닌 함께 즐긴다는 자세로 말이다. 지난 한 달이 팀원들 서로의 성향을 알아가고, 더불어 마을과 지역사람들 그리고 카바나투안 시티를 알아가며 액션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엔 충분한 미소와 온전한 팔다리가 있지 않은가? 한비야씨의 말씀대로 지도 밖으로 행군해보자. 우리에게선 실패도 울고 갈 만큼 강력한 무기인 젊음이 있으니!



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건 작건 간에 혼자 멍하니 앉아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지난 한 달의 필리핀 생활을 되짚어 보면 부족 그 시간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알렉스의 BMW 트럭 뒤에 올라 앉아 양 옆으로 펼쳐진 논길을 따라 발리크루즈로 이동하는 구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 가야 하는가와 같은 다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쉬워 보이지만 나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어디에 있나?”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 보게 된다. 다시 한번 묻는다 “도대체 이 사람들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여기 만리길 바다 건너에서 여기 겨우 굴러 가는 고철 덩어리 위에서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며 앉아 있는가” 단언컨대, 나는 이 질문을 필리핀에서 보낼 남은 시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던 스님이 돈오점수 하듯 한 순간에 깨닫지 않는 한 계속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한없이 가볍게 열고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뿐.

(만평) 당신이 생각한 것과 현실은 다르다.

이수진



필리핀에서의 한달, 그리고 국제자원활동

박진영



국민은행 해외봉사단 ‘라온아띠’의 이름을 달고, 필리핀에 온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지나갔고, 한 달의 기억은 너무나 짧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였을까’라고 다시금 생각해보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다.

해외봉사단, 아니 국제자원활동가로서 필리핀에 왔지만 분명 나는 이 곳에서 무엇을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곳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 모든 활동에 이러한 공식 아닌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필리핀에서 한 달여간 생활하면서 나온 답은 ‘나는 이 곳에서 큰 일을 할 수 없고, 너무나 작은 존재다’라는 것이다. 언어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데 어찌 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슈퍼맨이 아니며, ‘라온아띠’라는 명찰 하나를 덩그러니 달았다고 해서 없었던 지식이나 기술이 생기는 것은 더욱 아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감정을 다른 국가로 파견된 라온아띠 단원들, 아니 해외봉사단이란 이름을 내걸고 파견된 많은 봉사단원들 역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지만은 않는다. 완벽한 해답은 얻지 못하였지만, 일말의 힌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한 달간 지역사회 깊숙이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 그것이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소풍을 가고 술을 마시면서 - 시간을 공유함과 동시에 믿음과 희망 역시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를 도와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또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당장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만 봐도 그렇다. 파갈로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문화나 자원들 역시 우리들 보다 그들이 훨씬 잘 알기에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원활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 속에 프로그램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서로

가 주고받는 믿음과 사랑 속에 나타나는 희망의 빛 줄기가 바로, 자원활동의 또 다른 정의이자, 그것이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찰나같이 지나간 필리핀에서의 한 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자원활동, 나아가서 개발은 연애와 같다”라고 답하고 싶다. 자원활동이든지 개발이든지 시작은 연애와 같이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되고,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진심을 공유해야만 더욱 더 발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 된다’라는 위험한 주문에 앞서 ‘할 수 있다’라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서히 그들 속에서 녹아 들면, 분명 자그마한 희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며, 나는 오늘도 필리핀의 하루를 즐기고자 한다.







